

# 西歐經濟思想과 理論의 歷史的 考察과 새 經濟學의 摸索 —經生學(Zoconomics)—

朱 明 建\*

<目 次>

I. 서 論
II. 경제학의 1차 분수형
III. 경제학의 2차 분수형
IV. 경제학의 3차 분수형
V. 경제학의 4차 분수형
VI. 결 論 : 새 경제학의 모색

## I. 서 論

쿤(Thomas Kuhn)은 과학의 발전과정을, 기존 정상과학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마다 새로운 인식의 틀이 등장하여 다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제학은 크게 네번의 학문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그때마다 주류경제학의 이론체계를 수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네개의 분수형은 고전과경제학의 성립, 역사학과와 공산주의의 도전, 한계학과와 신고전학과의 반전 및 케인즈학과의 수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그 근본적 존재목표인 인간을 인간답게 귀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새로운 경제적 인식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이 성립된 지난 300여년 동안의 과정을 거시적으로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이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 성립되게 된 이래의 방대한 사상과 이론을 고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각 이론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본질을 다룰 수 있다면 무기력해진 주류경제학의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온전한 경제학체계를 정립하는

\* 世宗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경제학의 사상과 이론들의 논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였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이 어떻게 대두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전학파의 성립 과정을 고찰한 후, 고전학파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역사학과 마르크스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뒤이어 한계효용학파의 가치론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균형가격의 성립과정 및 가격의 자원배분기능을 다루었으며, 가치론상의 절충문제도 분석하였다. 케인즈이론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서 1920년대의 낙관적인 기대심리가 1930년대에는 비관적으로 전환되게 된 요인을 살펴보았고, 케인즈이론이 신고전학과와 종합된 과정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주류경제학이 무기력해지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각 학파의 견해를 함께 다루었다.

## II. 경제학의 1차 분수령

### 1. 교부철학

중세시대에 대해 암흑시대라고 하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중세시대가 유럽 문명의 본질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봉건시대 이후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의 산물로서 경제학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세의 올바른 이해는 비단 경제학 뿐만 아니라 과학문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

프랑크왕국이 붕괴되면서 9세기경부터 유럽세계에서는 봉건사회가 성립되어 갔는데, 자급자족을 하는 농민들은 외래민족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국왕보다는 가까운 영주의 보호에 의존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영주와 기사들까지도 지배할 수 없었던 조적과 기반이 바로 교회였다.

스콜라학파는 지식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었던 교회를 기본으로 해서 성립되었다. 중세유럽사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획일적이었기 때문에 교회이외의 곳에서는 지식을 연마하고 전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중세의 학문은 신학이 중심이 되었으며 철학도 신학의 시녀에 불과하였다. 13세기에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스콜라철학을 집대성하였으나 경제이론은 그 일부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세의 경제이론은 실증경제학이라기 보다는 규범경제학이다. 그래서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경제문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자와 이윤을 죄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유권도 인정되지 않았다. 아퀴나스는 상품이 지니는 가치 즉 정당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를 판매하면 죄악이라고 하여 정당가격문제를 중요시하게 다루었으며, 돈은 새끼를 낳을

수 없다고 하여 이자를 부인했다. 이와 같이 당시의 경제학은 가치기준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규범경제학이 그 전부였으며 인간의 본능이 부인된 사회에서 진정한 경제학이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 2. 중상주의

그러던 것이 르네상스기를 거쳐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세속적인 직업관, 절약의 미덕, 영리행위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아무런 제한없이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용납되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케플러 및 갈릴레오 이후에 지동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뉴턴에 의해 근대물리학이 완성되었다. 또한 자석의 원리, 혈액순환론 등이 발견되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석탄을 캐내기 위한 여러가지 산업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지리상의 발견은 유럽을 해외로 확장시켜 유럽은 세계의 상업중심지가 되었으며, 막대한 금·은의 유입은 가격혁명을 유발시켰다. 또한 교환수단으로서 화폐가 본격적으로 이용되면서 화폐금융제도가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중상주의이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그 학문의 초기에는 어느 한 개인의 단독으로 이론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표한 논문들을 집대성함으로써 정립되는 것이다.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중상주의 시대의 경제학자들은 보편타당한 인식의 틀보다는 경제정책의 논쟁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경제현상을 일관성있게 설명하는 학문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상주의 학자들은 상인, 정치가, 철학자, 관료 등이었으며, 그들의 주요 저술 역시 특정 정책과제에 대한 소책자였다.

중상주의 경제학자들은 그 당시가 국가사회건설의 초기 단계였으므로 부국강병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일국의 이익은 타국의 손실을 전제로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마찰이 극심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쟁이 유발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을 항상 염두에 두게 되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화폐자체를 국부로 보게 되었다. 화폐자체를 국부라고 본 중상주의를 초기중상주의라고 하며 무역차액의 증대를 목표로 한 중상주의를 후기중상주의라고 하는데 대표적 학자로서 만(Thomas Mun)이 있다.

만은 1621년 「동인도 무역론」에서 장기적으로 동인도회사는 화폐의 유출보다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인도회사의 화폐의 유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64년의 「무역에 의한 영국의 부」라는 논문에서는 부와 금·은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은 해외무역이며, 수입보다 수출이 커야 무역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

서 그는 국민들이 근검절약해서 수입을 억제해야 하고 수출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중상주의 시대를 지배했던 대표적 사상이다.

### 3. 중농주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의 경제행위를 억압한 나머지 국민경제가 피폐하게 되자 자연법사상과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중농주의가 등장하였다. 케네(Francois Quenay)는 자연법과 실정법을 구별하고 만약 실정법이 자연법을 어길 때는 자연법의 유익한 효과가 사라지게 되므로 실정법은 자연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하였고, 튜르고(A.R.J. Turgot)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하여 중농주의 학자들은 사익이 공익이 된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농업국가였고 국민총생산의 90% 이상이 농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농업을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케네는 그의 『경제표』에서 사회계급을 농민, 지주, 상인 계급으로 나누고 농업만이 순생산물 즉 잉여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나 중농주의의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이론은 농업의 단순재생산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었으나 그 이후에 진행된 공업화과정과 산업혁명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전학파에게 학문적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sup>(1)</sup>

### 4. 스미드(Adam Smith)

스미드는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모든 경제행위의 원동력을 이기심에 입각해서 보았는데 오늘날까지도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이에 따르고 있다.

그는 이기심을 반사회적인 것이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 편익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함으로써 인애의 덕을 너무 강조하여 이기심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한 허치슨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기심을 통해서 공익의 조화를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스미드의 율리사상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로 하는 가운데, 개인간에 사회적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자유방임주의의 경제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한 스미드도 최소한의 정의와 강제는 자유시장의 작용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기심이 인간성의 본질이라고 보고, 절약과 근면의 습관은 일반적으로 이기심에

(1) 프랑스 혁명에 의한 학문적 단절과 워털루전투 이후 유럽 대륙의 주도권을 장악한 영국의 경제학계가 의도적으로 이들의 기여를 평가절하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의해 배양되고 누구에게나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때 이러한 미덕이 강화된다고 보았다. 『국부론』에서 일관되고 있는 경제행동의 원천적 동기로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욕망에 근거를 두고 있는 데 그것은 인간의 강력한 본능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비심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기심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매일 식료품을 구입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농부나 정육점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sup>

또한 그는 이기심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공정하게만 경쟁한다면, 경쟁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사회의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경쟁 이외의 어떠한 동기도 인간의 근면성을 지속시킬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경쟁은 비효율적인 생산자를 제거하여 생산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따라서 자기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희소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억지로 정부가 국민을 간섭하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방임한다면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정부는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이 침입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국방과 교통체신망을 갖추는 것 이상의 할 일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기심을 통한 세계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류업자는 자기자신의 신발을 만들지 않고 신발업자에게 구입하며, 신발업자는 자기자신의 옷을 만들지 않고 의류업자로부터 구입한다. 왜냐하면 구입하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대적으로 덜 드는 생산물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간에 있어서도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전문화해서 생산하고 서로 교환한다면 모든 국가가 부국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3)</sup>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분업으로 가능하며, 분업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재화는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교환하여 조달되므로 교환 가치론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가격론과 분배론을 다루게 되었다. 그는 분업론에서 분업

(2) H.W. Spiegel,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Duke University Press, 1983, p. 243.

(3)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 Edwin Cannon Modern Library, 1937, pp. 421-438.

의 이익으로 시간이 절약되고, 일이 능숙해지며, 발명이 용이해진다고 보았고 이것은 시장 규모에 의해서 제약된다고 하였다. <sup>(4)</sup> 인간의 재능도 선천적인 것 보다는 분업에 의한 후천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분업이 발달하게 되면 교환의 매개물로서 화폐가 필요하며, 따라서 교환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는 이에 대해서 부는 타인의 노동을 얼마만큼 지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환 가치는 그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노동량이라고 하여 노동가치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노동가치론에 따라 노동이 근본적인 화폐라고 보았으나 사회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자본과 토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은 임금과 지대와 이윤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산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이 자연가격이고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인 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가격이 자연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지만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 역시 증가하고 기업이 진입하게 됨에 따라서 공급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 가격은 다시 자연가격으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sup>(5)</sup> 따라서 자연가격은 중심가격이고 시장가격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만 독점기업의 시장가격은 장기적으로도 자연가격보다 높다고 하였다.

##### 5. 리카도(David Ricardo)

스미드의 경제이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치론이었다. 즉 스미드가 주장하는 가치척도로서의 지배노동량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카도가 그의 가치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투하노동가치설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리카도는 상품의 교환가치(상대가격)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유용성과 희소성 및 노동을 들었는데, 쓸데없는 재화는 교환가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용성이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유용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고, 희소성은 희소한 재화의 가치만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상품이 노동에 의해서 재생산되기 때문에 상품의 교환가치는 투입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서 투하노동가치설을 체계화시켰다. <sup>(6)</sup>

상대적 투입노동량이 상품의 교환가치를 결정한다는 그의 이론에 있어서 그 자신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생산요소가격이었다. 즉 모든 상품의 생산방법이 같아서 노동과 자본의 결합 비율이 언제나 일정하다면 상대적 노동투입량이 교환가치를 결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노동투입량 뿐만 아니라 임금과 이윤 역시 교환가치에 영

(4) Ibid., pp. 3-21.

(5) Ibid., pp. 55-63.

(6) I.I. Rub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Ink Link Ltd, 1979, pp. 248-266.

향을 미친다고 하여 마샬을 비롯한 후세의 경제학자들이 그의 노동가치론을 생산비 이론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는 교환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불변의 가치척도로서 금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금은 다른 재화의 평균적인 생산방법과 같은 비율로 변화된다고 보았고 노동투입량 역시 일정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치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이론과 비교우위론을 체계화하였는데 그의 분배이론에서 강조한 것이 지대였다. 즉 지대는 원칙적이고 파괴할 수 없는 지력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기 때문에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곡물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는 비교우위론을 포르투갈과 영국이 옷과 포도주를 교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양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전문화해서 생산하고 자유무역을 한다면 양국이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 6.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

스미드가 1인당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분자인 소득을 중요시했다면 맬더스는 분모인 인구를 중요시하였다. 즉 그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에 있어서 인구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인구의 압력으로 부터 해방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구억제수단으로서 산아제한과 만혼등을 주장하였다.<sup>(7)</sup> 이렇게 해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은 일단 완성되었으나 부의 분배가 편중되고 절대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이를 비판하는 역사학과와 공산주의 경제이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 III. 경제학의 2차 분수령

#### 1. 구 역사학파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및 세계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체계가 독일의 역사학파이다. 그들은 연역적 방법론 대신에 귀납적 방법론으로 경제문제를 분석했고 경제학을 각 국민경제의 특수성을 밝히는 학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든 시대 모든 국민경제에 보편타당한 경제이론이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독일과 같은 후진국의 국민경제에는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7) Ibid., pp. 291-300.

리스트(Friedrich List)는 독일의 국민경제를 농업상태에서 농·공·상의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데 그의 이론의 목적을 두었으며 경제발전 5단계설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독일의 공업을 보호관세로서 육성한다면 독일의 국민경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그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일국의 국민경제가 충분히 발전하여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농·공·상의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국의 자유무역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무역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귀결로서 그의 경제이론은 국가주의적 경제이론이었다.

고전학파의 이기주의와 사유권을 비난한 학자가 크니스(Karl Gustav Knies)였다. 그는 스미드의 이기주의는 사회의 도덕과 법규가 변화되면 그 내용이 변화된다고 하였고 따라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체제는 독일의 국가 통일에 역행하며 무익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유권은 시대적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중세 이전에는 사유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유권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독일이 처한 환경 및 역사적 현실을 중요하게 다룬 학자는 힐데브란트(Hildebrand)였다. 그는 인간의 가치판단과 행동원칙은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경제이론은 각 사회가 처해 있는 발전 단계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도덕과 종교 및 사회관습이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 2. 공산주의

마르크스(Karl Marx)는 그의 주 저서인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경제법칙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의 영향을 받아 잉여가치설에 근거한 분배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어떤 상품의 가치는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유도해 낼 수 있었다. 임금과 생산물 가치의 차액이 잉여가치가 되며 이것이 이윤과 이자 및 지대의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자본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나누었다. 가변자본이란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자본으로 임금에 해당하며 불변자본이란 생산시설, 기계, 원료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자본이다. 그가 이처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나눈 이유는 가변자본만이 잉여가치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변자본을  $V$ , 불변자본을  $C$ , 잉여가치를  $S$ 라고 한다면,  $C/V$ 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S/V$ 는 착취율,  $S/(C+V)$ 는 이윤율이 된다고 하였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는 기업과 산업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커지게 된다. 착취율은 기



술이 진보해서 노동투입량이 감소하게 되면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착취율이 노동자 계급과 비노동자 계급의 소득을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이윤율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감소하며, 완전경쟁시장에서 산업간의 이윤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자원이 이동되기 때문에 산업간 이윤율은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그의 경제이론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의 혁명에 의해서 사회주의의 도래는 필연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즉 봉건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계승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는 다시 사회주의 사회로 계승·발전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인류의 경제제도는 부단히 변천된다고 하는 사회의 운동법칙을 헤겔의 변증법에서 찾았다. 그 결과로 발생한 체계가 '변증법적 유물론'이며 처음상태를 정(thesis), 이에 대립되는 상태를 반(antithesis), 그리고 두 상태가 지양된 새로운 상태를 합(synthesis)이라고 하였고, 합 자체도 새로운 발전의 제 1 단계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와 대립·투쟁하게 되어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유물사관에 의한 5단계설은 미완성으로 끝났으며, 역사적 발전 단계의 순서는 역사적 현실과 일치하지 않았고, 후진국이었던 소련과 중공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의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높아진데다가 주관가치론인 한계효용가치론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그의 노동가치론은 타당성을 잃게 되었다.

### 3. 신 역사학파

구 역사학파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파상적 공격으로 무기력해지자 이를 수정보완하여 이론체계를 재정립한 것이 신 역사학파로서 다소간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구 역사학파 역시 정치, 법률, 종교 및 윤리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나 이를 더욱 강조한 학파가 신 역사학파인데, 대표적 학자가 슈몰러(Gustav von Schmoller)이다. 슈몰러는 1900년에 출판한 『일반 국민경제학 개론』에서 경제현상은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법률, 관습, 도덕 및 제도에 의해서 변화되므로 윤리적이고 법적인 요인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그는 가치 판단으로서의 주관성을 너무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베버(Max Weber)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멩거(Carl Menger)와의 방법론논쟁도 멩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신 역사학파의 몰락을 재촉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외에 신 역사학파 학자로서 바그너(Adolf Wagner)는 1887년에 출판한 『재정학과 국가

사회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조세정책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여기에서 그가 주장한 조세의 원칙은 오늘날 조세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브렌타노(Ludwig Joseph Brentano)는 노동조합의 자유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상품으로서의 노동은 매매에 있어서 인격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장래에 유리한 시기에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오늘날 노동조합법과 노동법학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좀바르트(Werner Sombart)는 자본주의 정신이 자본주의의 추진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정신을 영리주의와 합리주의라고 하였으며, 유태인과 유럽의 경제발전을 연결시켜 자본주의 정신을 창조했던 힘이 유태인에게 있었다고 하였다.

베버(Max Weber)는 경험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분석하는 존재과학이지 존재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는 당위과학이 아니므로 정책적 가치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자본가들이 대부분 ‘칼비니스트’인 사실에 주목하여 근대적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정신이 바로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이라고 하였다.

#### IV. 경제학의 3차 분수령

##### 1. 한계혁명

경제학은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공산주의가 노동가치론에 입각한 잉여가치설로 집요하게 공격해오자 그 방어책으로서 한계효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주관가치론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당시까지 총계분석이었던 경제이론이 한계분석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한계라는 용어는 최종 한 단위 또는 추가 한 단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미분과 같은 개념으로 증가율을 뜻한다. 한계분석이 도입됨에 따라 한계수입, 한계비용, 한계생산물, 한계효용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경제분석은 한계개념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1870년대 영국의 제본스(William Jevons), 오스트리아의 멩거(Carl Menger), 스위스의 왈라스(Leon Walras)가 각각 독립적으로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경제문제를 분석했다고 해서 이를 한계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계분석은 이들 세 학자들에 앞서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이어져 왔다. 튀넨(J.B. von Thünen)은 고립국가론에서 한계분석을 생산이론에 적용해서 가변비율의 법

칙과 분배이론을 확립했고, 노동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의 한계생산물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쿠르노(Antoine Cournot)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독점이론을 전개하였고, 또한 판매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독점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된다고 하여 여러 종류의 시장형태에서 가격과 산출량과의 관계를 분석했다.<sup>(8)</sup>

곳센(H.H. Gossen)은 한계효용학파의 선구자로 X축에 어떤 재화의 수량(수량의 배수)을 표시하고 Y축에 효용을 표시하여 효용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제 1법칙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고 제 2법칙은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인데 그가 사망한 지 20년후인 1878년이 되어서야 제본스와 왈라스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가 그들의 선구자였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 2. 한계효용학파

제본스는 1871년 출판된 『정치경제이론』에서 경제학은 물질을 취급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리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재화를 무한히 세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미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학을 쾌락과 고통에 관한 도함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일지라도 각 단위가 똑같은 효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한계효용을 무한히 세분된 단위의 추가효용이라고 정의하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과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으나 용어만 다를 뿐 곳센의 제 1법칙 및 제 2법칙과 다른 것이 없다.

한계효용이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가치론 대신에 주관가치론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를 설명하게 되었다. 제본스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유용성, 희소성, 노동을 들고 있으나 가치결정요인으로서의 노동투입량은 노동에 의해서 재생산될 수 있는 재화의 가치만을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유용성과 희소성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한계효용이 바로 유용성과 희소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9)</sup>

고전학파는 사용가치와 희소성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았으나 제본스는 두가지 개념을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통일해서 사용가치는 총효용, 교환가치는 한계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고전학파는 가치결정요인으로서 공급의 이면에 작용하는 비용을 강조했으나 제본스는 수요의 이면에 작용하는 한계효용 즉 희소성과 유용성을 강조했으

(8) Op. cit., pp. 445-449.

(9) Ibid., pp. 449-455.

며, 고전학파가 상품의 가치를 개인과는 무관한 외부의 세계에서 찾았다면 제본스는 인간의 주관적인 심리상태에서 찾았다.

이와 같이 고전학파의 가치론은 생산요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상품의 가치라고 보았으나 제본스는 노동의 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여 생산물의 가치로부터 생산요소의 가치를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본스는 노동이 가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상품의 가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산비는 공급을 결정하고 공급은 최종효용도를 결정하며 최종효용도는 가치를 결정한다.”<sup>(10)</sup> 즉 그는 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량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은 다시 그 재화의 효용의 강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교환가치를 간접적으로 결정한다고 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산비와 한계효용과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봄으로써 마샬이 주장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교환 가치가 결정된다는 논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비용이 가치결정요인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지 않았다. 이외에 한계효용학파로 멩거와 왈라스 등 여러 학자가 있으나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을 뿐 주관가치인 한계효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 3. 마샬(Alfred Marshall)

마샬의 경제이론이 한계효용학파와 다른 점은 효용을 수요분석에 종속시킴으로써 수요이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과 고전학파의 가치론(생산비 이론)을 발전시켜 공급이론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그의 이론의 두개의 분석도구였으며 이 두개의 곡선을 가리켜 마샬의 십자(Marshallian Cross)라고도 한다. 또한 그의 분석방법이 부분균형 분석방법이었기 때문에 특정기업과 특정산업을 다룰 수 있었다.

마샬의 경제이론체계를 신고전학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고전학파와 한계효용학파의 경제이론을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즉 그의 경제이론은 비용을 중요시하는 고전학파 경제이론과 효용을 중요시하는 한계효용학파의 경제이론을 절충한 이론이란 뜻이다. 그의 수요분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화폐의 한계효용이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지출은 그의 총소비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화폐의 한계효용은 일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그의 한계효용이론에서는 대체효과만 설명될 수 있을 뿐 소득효과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가정하에서만만이 그의 화폐수량설이 취하는 체계와 일치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일반물가수준의 역수로 표시되는 화폐가치는 어느 화폐단위도

(10) H.W. Spiegel, op. cit., p. 522.

동일한 가치를 나타내야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Hicks에 의해서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하여 무차별곡선 이론에서 소득효과를 대체효과와 구별하여 다루게 되었다.

그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비자잉여, 공급의 가격탄력성 등 새로운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하였는데 그가 특히 중요하게 다룬 것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었다.<sup>(11)</sup>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장기간,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라고 하였고, 장기의 균형가격은 생산비를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해서 가격을 결정하므로 가위에 비유될 수 있지만 공급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마샬의 가치론은 효용이론과 고전파의 가치론을 절충한 이론으로서 수요가 증가하면 일시적(시장기간) 균형가격은 상승하겠지만 단기에 있어서는 공급이 증가하므로 단기 균형가격은 일시적 균형가격보다 하락하게 되고 장기가 되면 균형가격이 더욱 하락하여 한계효용 및 평균비용과 같아진다. 만약 생산요소의 가격이 불변이라면 완전탄력적인 장기공급곡선이 되고 생산요소가 가격이 상승하면 우상향하는 장기공급곡선이 된다. 이처럼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아지는 상태는 스미드의 가격이론과 리카도의 가치이론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스미드의 자연가격이 장기균형가격이며,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리카도의 가치론이었기 때문이다.

마샬은 완전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려했으며 대신에 경제적 자유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또한 그는 그의 결론을 완전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생물의 라이프 사이클을 원용해서 대표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즉 기업은 생물이 성장하고 노쇠하는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성장은 억제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표적 기업이란 상당히 오랫동안 존속해 왔고 성공을 거둔 기업으로서 정상적인 능력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비를 추정하기 위한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업을 말한다.

## V. 경제학의 4차 분수령

마샬에 의해서 완성된 신고전학파는 한동안 경제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듯 하였으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자본시장이 확대되고 사회제도와 의식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설명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폐적 측면에서 보완하려는 부

(11) 주명진, 『경제사상사』, 박영사, 1984, pp. 500-510.

구학과와 사회제도와 관습의 측면에서 비판을 가한 제도학파가 등장하였으며 급기야는 세계경제가 파국에 빠지게 되자 케인즈에 의한 새로운 인식의 틀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서 경제학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 1. 복구학파

복구학파의 대표적 학자로는 빅셀(J.G.K. Wicksell)을 들 수 있다. 그는 물가수준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주요 논점을 이자율에서 찾았다. 화폐수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논의가 그 이전에도 있어 왔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새로운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결국 신용이 확장되어 자금을 차입한 사람들이 그들의 금융자산을 이용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화폐수량이 물가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다. 그러나 빅셀은 이자율이 높거나 낮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이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장이자율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자연이자율은 투자에 대한 예상수익율이며 시장이자율은 은행이 차입자에게 요구하는 대출이자인데, 자연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면 생산요소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생산요소 소유자들의 명목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재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하는 것이 빅셀의 누적 과정이다.<sup>(12)</sup>

빅셀의 자연이자율과 시장이자율에 대한 이론은 투자와 기대심리를 설명하는 이론이었다. 그 이후 규명된 것이지만 그의 자연이자율은 케인즈의 자본의 한계효율과 본질상 같은 개념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빅셀의 이론이 국민소득 결정이론으로 발전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론 역시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결정이론이라고 하기 보다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에는 소비함수와 승수이론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화폐금융정책의 목표는 완전고용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가수준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외에도 복구학파 학자중에 린달(Erik Robert Lindahl), 올린(Bertil Gottbard Ohlin), 캣셀(Gustav Cassel) 등이 있으며 모두 화폐경제면을 중요시하였고 사전적 개념과 사후적 개념을 구별했다는 점에서 이 학파의 경제학적 공헌이 있다.

### 2. 제도학파

미국의 제도학파는 자연법과 자유주의 사상을 불신하고 경제질서는 사회적, 인위적 제도에 의해 규제된다고 주장하는 학파이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학의 임무로서 제도의 기원, 발

(12) H.W. Spiegel, op. cit., p. 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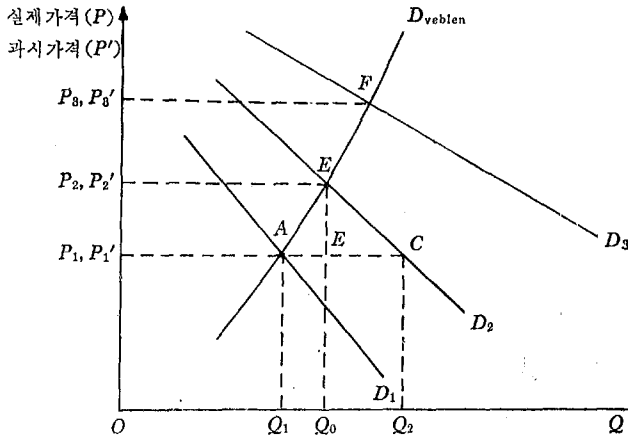
달, 기구 및 영향을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미국적인 경제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학파는 미국의 독창적인 경제학자였던 베블렌(Thorstein Veblen)에 의해 창설되었다.

베블렌은 전통적인 경제이론 대신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던 사회의 법적관계, 사유재산제도, 경제활동의 급진적 특징 등을 다루고 있어, 오늘날 경제학자들보다도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더 큰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과시소비이론은 주류경제학에 점차 수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자기능력과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이와 같은 과시소비가 인간의 강력한 본능이며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는 과시소비의 연장으로 모든 경제현상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비생산적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부와 능력에 있는데, 이것을 자기신분과 재력을 과시하려는 인간행위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는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에서 인간의 경쟁적 본능(emulatory instinct)이 자기보존본능 다음으로 강력하다고 전제하고 전통적으로 부자는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인간의 지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 평가되어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생산적 노동은 빈자에 의해서 수행되며 여가는 부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여 여가 자체도 하나의 소비재로 보았으며,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여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였다.

리벤스타인(Liebenstein)은 그의 1950년의 논문인, 「Bandwagon, Snob, and Veblen Effect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에서 베블렌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리벤스타인은 베블렌 재화(Veblen good)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재화는 그 효용이 그 재화의 유용성과 지불되는 가격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과시적 가격(conspicuous price)이 있게 되는데 과시적 가격이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지불했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이며, 이와 같은 가격이 어떤 한 재화의 과시적 소비에서 오는 효용(conspicuous consumption utility)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량은 그 재화의 가격과 그것에 의해서 예상되는 과시적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수요곡선  $D_1$ 은 과시적 가격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려진 것이다. 과시적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요곡선은  $D_2$ ,  $D_3$ 와 같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며, 균형점도 A, E, F가 되게 된다. 이 균형점들을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베블렌 수요곡선(Veblenian demand curve)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 베블렌 수요곡선

가격이  $P_2$ 에서  $P_1$ 으로 하락했을 경우 과시적 가격이 변화가 없는 한 수요량은  $D_2$ 곡선을 따라  $Q_0$ 에서  $Q_2$ 로 증가하겠지만 과시적 가격이  $P_1$ 으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Q_1, Q_2$ 만큼 감소하게 된다. 즉 베블렌효과가 가격효과를 능가하는 한, 가격하락은 수요량을 감소시키므로 수요곡선은 우상향하는 수요곡선이 된다. (13)

베블렌 이외에도 미국의 제도학과 학자 중에 콤먼즈(John R. Commons)와 미첼(Wesley C. Mitchell) 등이 있으며 경기변동에 대한 미첼의 이론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어 미국경제학의 중요한 특징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

### 3. 케인즈(John Maynard Keynes)학파

1920년대까지 신고전학과 경제이론은 경제학의 주류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신고전학과 경제이론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장기균형가격이 한계비용 및 평균비용과 일치하게 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체제였다. 즉 고전학파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와 근본위제도를 계승하였고, 최선의 정부정책은 어떤 종류의 간섭보다도 시장기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며, 세입과 세출은 전지를 제외하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재정정책은 정부의 일시적 기체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금융정책 역시 은행의 안정과 국제수지문제에 관한 것이 그 전부였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시장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문제

(13) R.B.E. Ekelund & R.F. Hebert, *A History of Economic Theory and Method*, 1983, pp. 410-412.



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국민경제는 이미 1929년 10월 자본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위축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즉 주택과 생산시설은 1차대전과 1920년대의 낙관적인 기대심리로 모두 확대되어 과잉시설문제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유보이윤의 증대로 인한 저축의 증가는 소비수요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총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자, 위축되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이것은 다시 비관적인 기대심리를 창출하여 다시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붕괴로 말미암아 기업의 자본조달기능이 마비되었으며 연쇄적으로 은행이 파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말미암아 1920년대부터 이미 침체되었던 농업, 방직공업, 탄광업, 철도산업 등과 더불어 1920년대까지는 성장산업이었던 건설업과 자동차산업등 모든 산업이 1929년부터 위축되어 미국의 GNP는 1929년 1,044억불에서 1933년에는 556억불로 낮아졌고 물가수준의 하락을 고려한 실질 GNP는 25%가 감소하였다. 실업율은 1929년 3.2%에서 1933년에는 25%까지 증가되었다.<sup>(14)</sup>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은 전세계로 파급되어 유럽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이 뒤이어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의 경제문제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실업의 문제였으며 케인즈는 이 문제에 대한 당시의 시대적 여건의 변화를 예리하게 파악한 학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시장에서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며 신고전학파가 전제하는 개별적인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학자였다. 즉 미래는 불확실하며 현재 및 과거까지도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예상에 입각하여 행동하며 이러한 개별경제주체들이 모여서 복잡한 경제현상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sup>(15)</sup> 따라서 그는 심리적인 요인을 강조하여 투자는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는 투자의 한계효율과 유동성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자율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정부가 재정금융정책상의 섬세한 조정을 통해 경기변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의 『일반이론』의 결론은 국민소득은 총지출과 같다는 전제하에 소비지출은 국민소득에 대해서 안정적이지만 투자지출은 투자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지출이 부족할 경우는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조세를 감면시키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의 화폐이론에서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이것이 투자규모

(14) M.R. Primack & J.F. Willis, *An Economic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980, pp. 350-407.

(15) 주명진, 『경제사상사』, 박영사, 1984, pp. 550-554.

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결정된 투자가 국민소득을 증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을 증감시키는 금융정책에 의해서도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이론 이후의 경제학의 발전과정은 신고전학과종합(주류경제학)의 균형이론으로 흡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현대의 주류경제학에서는 재정금융정책에 의해서 완전고용국민소득을 실현시키고 나면 고전학파의 세계가 도래하고 시장기구에 의해서 다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경제학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미국의 경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1970년대 초반부터 경기침체시에도 물가가 연평균 4~5%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74년도에는 실업률은 9.2%였고 물가상승률은 12%였는데 당시 경제상황에서 쓰여진 용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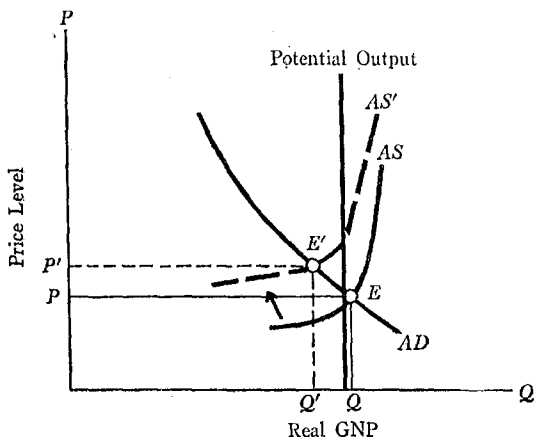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경제이론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3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통화론자들의 견해와 갈브레이드(John Galbraith)의 소득정책 및 주류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갈브레이드는 케인즈이론에 입각한 재정금융정책은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위기시대라고 한 바 있다. 그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정부가 억제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제거할 수 있고 동시에 조세감면정책을 통해서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정책을 소득정책(income policy)이라고 한다.<sup>(16)</sup>

프리드만(M. Friedman)은 미국의 금융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경제현상의 부정확한 진단과 정책반영과정에 있어서 숙명적으로 수반되는 시차문제 등으로 금융정책은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바람직한 경제성장률에 비례한 일정률로 통화의 공급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4%인데 이것은 생산성향상과 노동의 공급을 고려할 때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sup>(17)</sup> 그에 의하면 금융정책의 목표는 통화량이 지나치게 변동함으로써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고 본 것이다. 즉 통화당국이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마구 통화량을 증감시킨다면 경기변동의 진폭을 격화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서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성장률이 바람직한 성장률을 능가할 때는 금융사정이 자연히 팽박해져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고 성장률이 바람직한 성장률에 미달할 경우는 금융이 완화되어 성장이 촉진된다고 본 것이다.

사무엘슨(Paul A. Samuelson)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16) M.R. Primack & J.F. Willis, op. cit., p. 431.

(17) Ibid., p. 434.



〈그림 2〉 스태그플레이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어떤 국민경제가 E'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자. 재정금융정책에 의해서 총수요를 증가시켜 실업을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물가가 더욱 상승하게 되며, 총수요를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해소시키려고 했을 때는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학은 과학적인 답변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sup>(18)</sup>

이외에도 미국에서 공급측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여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되고 있으며, 제화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노동을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세, 정부지출감축, 정부의 경제통제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노동의욕과 투자의욕을 해쳐서 소득이 줄게 되고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보고 있는데, 세율과 세수의 이와 같은 관계를 주창자의 이름을 따서 래퍼곡선(Laffer Curve)이라고 부르고 있다.

## VI. 결론 : 새 경제학의 모색

### 1. 요약

중세의 경제이론은 교부철학의 일부였고 실증경제학이라기 보다는 규범경제학이었다. 따라서 정당가격의 문제를 중요시하였으며 이자를 부인했다. 그러던 것이 종교개혁이 시작되

(18) P.A. Samuelson & W.D. Nordhaus, *Economics*, McGraw-Hill Book Company, 1985, pp. 95-96.

면서 세속적인 직업관, 절약의 미덕, 영리행위 등의 정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서유럽의 지리상의 발견으로 막대한 양의 금, 은이 유입되면서 화폐금융제도가 발달하였고 또 국가건설이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화폐가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따라서 국부는 화폐라고 보는 중상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경제이론 역시 특정 정책과제에 대한 소재자로서 학문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연법사상과 개인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이 중농주의에 의해서 체계화되어 농업의 단순재생산 과정을 설명할 수는 있었으나 그 후에 진행되는 공업화과정과 산업혁명은 설명할 수 없었다.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 체계화된 것은 스미드의 『도덕철학』과 『국부론』에서부터였다. 그는 이기심에 의해서 절약과 근면의 미덕이 배양되고, 경제활동의 원천적 동기인 욕망의 충족도 이기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기심에 근본을 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간에 있어서도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모든 국가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세계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일국의 소비량은 그 나라 국민이 직접 생산한 생산물과 일부 교환된 타국의 생산물로 구성되는데 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산비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가치론으로부터 생산비를 반영하는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의 개념이 유도될 수 있는데 경쟁시장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은 장기가 되면 자연가격과 일치하지만 독점기업의 시장가격은 장기적으로도 자연가격보다 높다고 보았다. 스미드의 경제이론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치론이었다. 스미드가 주장하는 지배노동가치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리카도가 이를 비판하면서 그의 경제이론을 체계화시켰다. 그는 상품의 교환가치(상대가격)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유용성, 희소성, 노동을 들었으나 유용성과 희소성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상품의 교환가치가 투입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가치이론을 근거로 해서 분배이론과 비교우위론을 체계화시켰다. 그의 분배론에서 강조한 것은 지대였으며 지대는 생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곡물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지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비교우위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전문화해서 생산하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희소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양국이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맬더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에 있어서도 인구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인구압력 때문에 심각한 경제문제를 낳는다고 하여 그 해결방법으로서 산아제한과 만혼 등을 주장한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영국의 자유방임주의 및 세계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학파가 독일의 역사학파이다. 그들은 귀납적 방법론으로 경제문제를 분석하였고 경제학을 각 국민경제의 특수성을 밝히는 학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모든 시대 모든 국민경제에 보편타당한 경제이론이란 있을 수 없으며 특히 독일과 같은 후진국의 국민경제에는 고전학과 경제이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은 보호관세로서 공업을 보호육성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이기주의를 비난하였다. 또한 도덕과 종교 및 사회관습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 독일이 처한 환경과 역사적 현실을 강조하였으며, 상품으로서의 노동의 문제, 노동조합의 자유화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가치론에 근거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였다. 그는 노동력의 가치가 생존비에서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유도하여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를 착취율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가치설을 근거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자 19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한계효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주관가치론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당시까지 총계분석이었던 경제이론이 한계분석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경제변수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함수관계로 표시되었으며, 총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하는 균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한계효용이론이 등장하게 되면서 노동가치론 대신에 주관가치론에 의해 상품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제본스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고전학과 학자들과 같이 유용성, 희소성, 노동(생산비)을 들고 있으나 가치결정요인으로서 노동투입량은 노동에 의해서 재생산될 수 있는 재화의 가치만을 설명할 수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노동투입량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유용성과 희소성을 들었다. 그는 노동이 가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서 한계효용과 생산비와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비용은 간접적으로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마샬이 주장하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논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샬은 효용을 수요분석에 중속시킴으로써 수요이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고전학파의 가치론(생산비이론)을 발전시켜 공급이론을 완성했다. 따라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그의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두개의 분석도구였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경제이론을 절충이론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그의 가치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이론체계였지만 장기가 되면 상품의 가치는 생산비와 일치한다고 하여 고전학

파의 가치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20년대까지 신고전학과 경제이론은 경제학의 주류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나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시장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렸다. 1차대전 동안의 전쟁수요와 1920년대의 낙관적인 기대심리로 과잉투자한 결과 가동율이 떨어지자 실업이 늘고 소비수요가 위축되었다. 총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자 이것은 다시 비관적인 기대심리를 창출하여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자본시장의 붕괴와 더불어 은행이 파산되었고 경기가 침체되어 대량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의 변화를 예리하게 파악한 학자가 케인즈였다.

그는 시장에서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기대심리로 인해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켰다. 즉 불확실성과 기대심리로 말미암아 총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재정금융정책을 역설한 것이 그의 이론이었다. 현대의 주류경제학인 신고전학과 종합의 균형이론은 재정금융정책에 의해서 완전고용이 실현되고 나면 시장기구에 의해서 다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경제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아직까지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완전한 경제이론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적어도 3가지 견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는 통화론자들에 의한 금융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갈브레이드에 의한 소득정책이고 나머지 하나는 주류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그밖에도 합리적 기대론, 공급주의 경제학 등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였으나 아직은 어느것도 주도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혼돈상태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경제학은 제 5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 2. 새 경제학의 모색 : 경생학(zoconomics)

이러한 현대경제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첫째, 케인즈이론에 입각한 정부부분의 확대와 민간경제에의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70년대 이후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서 급기야는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었다.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케인즈이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정부부분의 비중이 국민소득의 10%를 넘지 않았으나 정부의 경기조절기능과 복지증대라는 명분하에 오늘날에는 35~55% 수준을 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정부부분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장기적으로 달성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에 의한 경제체질의 강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진정한 세계화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이다. 1957년 로마조약의 성립이후 EC가 성공적으로 유럽의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통합

이 추상적인 이론의 단계를 벗어나서 경기침체의 현실적인 타결방안임을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규모화와 국제화, 교통수단의 발달, 오염의 가속화, 무기체제의 발달로 말미암아 국가간의 상호의존도는 급증되었으며 역사발전의 대세는 국가사회에서 세계사회로 부단히 진전되고 있는만큼 경제학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난 200여년동안 경제학의 위대함이 국가사회의 등장과 과학기술의 혁신에 근거한 산업화의 대세를 감지하고 이러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체제화하고 신흥기업가들에게 명분을 부여한 데에 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인식의 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경제이론은 봉건영주제도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민족국가가 부상할 때 형성되어 그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고 국가사회와 더불어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300여년 동안 교통기관의 발달은 가히 혁명적이어서, 그 속도는 50배 이상 증가하였고 통신수단은 전세계가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물리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같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적어도 1/50 내지 그 이하로 줄어 들었다. 전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국민경제의 주체인 국가사회도 그 존재이유가 불분명해지게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과 수단이 상충하게 되었다. 주류경제학이 무기력해진 것도 근본적으로 경제학의 이론체계의 전제조건이 변화된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경제학은 세계사회의 경제이론으로 근본적인 탈바꿈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소득분배와 국제교역 및 효율성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행위의 동인이 단순한 이기주의를 벗어나 보다 본원적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경제적 인식의 틀도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기존 경제 이론은 공리주의에 근거한 이기주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체계이다. 그러므로 그 기본 바탕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교한 이론이라도 현실적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경제학의 전제조건들을 깊이 음미하고 삶의 관리학(zoenomics)으로서의 경제학(economics)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원래 경제학(economics)은 그리스어로 oikos(가계)와 nomia(관리)의 합성어로서 물질의 관리학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됨에 따라 경제행위의 동인을 물질적 이윤의 극대화로만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이를 고집함으로써 경제학의 방대한 이론체계가 그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 것이다. 경영학에서는 이미 인간의 욕망이 단순한 생리충족의 단계에서 발전하여 급기야는 자아실현 단계

로 들어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이 아직도 인간을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이기주의적 동물로만 전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자체이 유아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현실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영진이 단순한 이윤극대화보다는 시장점유율의 극대화 내지는 경영권의 유지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 및 이미지의 부각 등 다양한 동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수립자도 정권의 유지, 자아의 실현 등 다양한 동인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단순한 이기주의에만 입각한 경제행위의 분석은 현실적 타당성도,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오늘날에는 경제학도 단순한 물질의 관리학을 넘어서 영혼과 물질을 종합한 삶의 관리학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저자는 zoe(삶)와 nomia의 종합으로 zoenomics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지난 300여년 동안의 경제학의 발달과정을 요약·분석해 보면 크게 물질주의와 정신주의적 요소 및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이율배반적 요소들이 상호교호작용을 일으키며 그 강조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주도적 시대정신을 만들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개인주의	전체주의
물질주의	고전학파	역사학과 공산주의
정신주의		교부철학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면 새로운 경제학은 상호대립적인 두명제들을 종합함으로써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주류경제학이 소홀히 하고 있는 개인주의와 정신주의의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경제학이 보다 완전하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류경제학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경제체제가 무한정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열역학 제 2의 법칙에 의하면 energy는 계속적으로 쓸 수 없는 형태로 변형되어 entropy가 증대되는 데다가 인류의 문명은 발전과정 자체가 그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급기야는 성장의 한계점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로마클럽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류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공업발전을 지속할 경우 앞으로 25년 동안 지구의 무게만큼 광물자원을 소비해야 하는 데 이는 불가능한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무제한의 가용자원을 전제로 한 경제성장은 그 근본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보다 존귀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그 방법으로서 인간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생산의 증대를 추구하였을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기대치와 실제치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증대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생산고를 증대시키는 것이나 인간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기대치를 축소시키는 것이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것이 동양의 노장사상과 같이 극에 달하면 물질문명의 발달을 억제할 수도 있으나 적당하게 조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맹목적인 경제성장 보다도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 경제학은 무제한의 성장보다는 적정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의 견인력을 시장의 개방을 통한 국제소득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제한의 자원을 소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의 기초소비와, 자녀교육과 여행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자원과 소득의 배분정책을 세계적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더우기 주요 공업국가들의 정부예산중에서 1/3 이상을 국방비로 소모시키는 현실을 숙명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대 경제학의 가장 심각한 과제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려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 參 考 文 獻

- 박기혁, 『경제학사』, 범문사, 1982.
- 박우희, 『경제학설대관』, 박영사, 1979.
- 주명진, 『경제사상사』, 박영사, 1984.
- Blaug, Mark,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3r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Gide, C. and C. Rist, *A History of Economic Doctrine*, 7th ed., Heath, 1948.
- Guilder, George, 『부와 빈곤』, 김태홍·유동길 역, 우아당, 1981.
-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Mises, Ludwig von, 『자유경제의 철학』, 김태홍 역, 우아당, 1983.
- Naisbitt, John, 『제 4의 물결』, 정음출판사, 1984.
- Rifkin, Jeremy, 『엔트로피』, 김건·김명자 역, 정음사, 1983.
- Rima, I.H., *Development of Economic Analysis*, 3rd ed., Irwin, 1978.
- Roll, Eric, *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3rd ed., Prentice-Hall Inc., New York, 1956.

- Schumpeter, Joseph,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 Spiegel, Henry,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Prentice-Hall Inc., New York, 1971.
- Thurow, L.C., 『위협한 조류』, 유동길 역, 우아당, 1983.
- Thurow, L.C., 『제로섬 사회』, 지철민 역, 한마음사, 1980.
- Thurow, L.C. and Heilbroner, 『경제의 다섯가지 도전』, 김태홍 역, 우아당, 1982.